

오피니언

특/별/기/고

시론



“새해에 스님은 무엇을 계획 하십니까?”
 새해가 되서 인사차 찾아온 사람들은 의례히 이 같은 질문을 하곤 한다.
 그러나 이 물음에 대하여 대답할 말이 얼핏 떠오르지 않았다. 주저주저 하다가 “계획이랄 것이 별로~” 하고는 말을 어물쩍 거리면서 넘기는 것이 나의 대답이었다.

1년의 계획은 원단(元旦)에 있다는데 아무 계획이 없다는 것은 1년을 허송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일생 중에서 1년이라는 생명을 잘라 버리자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 새해를 맞을 때마다 계획을 세워 보지만 그 해를 다 보내고 나면 계획대로 된 일이라고 한번도 없었다. 철을 좀 알기 시작한 이래로 30여년을 이와 같이 지내왔으니 금년인들 이러 이러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선뜻 말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나의 계획이 황당할 탓이지 또는 계획을 실천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그러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나의 계획은 번번이 틀어지고 있었다.

일년을 다 지내고 나면 회한이 온통 마음속을 차지할 뿐 아니라 어이없는 허무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것이 올해만의 일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일생이 이와 같이 허망하여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일 없이 세상을 등지고 마는가, 사투 열려되어 견딜 수가 없다. 이 세

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날 적에 부끄럼 없는 한생을 마감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알 수는 없어도 그런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일생이었다고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기의 능력을 헤아려 애초부터 자기 능력에 따라 이상에 맞는 계획만을 세워서 여유있게 그 계획만 완수한다면 그야말로 일 년의 허무감은 없었을 터인데 “눈은 높고 손은 적다”라는 말처럼 능력은 모자란데다가 이상만 높아서 소소한

계획은 아예 돌아보지를 않고 주제넘은 생각만을 하게 되니 이것도 병인지 참으로 우환당어리다.

대체 사람이 욕심을 가져야 할지 버려야 할지 쉽게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다. 경제학자의 말을 빌리면 인류 문화의 발달은 무엇을 성취하려는 욕망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욕심과 몇 차이나 되는지 몰라도 가까운 피붙이 관계인 것만은 틀림없는 듯하다.

이와 같이 생각해 보면 사람은 욕심이 아주 없어도 살 수 없는 노릇이니 대관절 욕심을 어느 정도 버려야 하는지가 문제

들을 보면서 역사적 본보기로 삼아야 될 것 같다.

그렇다면 공자나 부처님 같은 성현들의 삶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저분들에게는 과연 욕심이 없었을까. 공자와 부처님처럼 욕심이 많은 사람도 일찍이 없었다. 저분들의 욕심은 공존 공영하는 욕심이라 하겠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를 마침내 고통이 없는 영원한 평화의 세계로 인도 하겠다는 욕심이니 그보다 더한 욕심이 또 어디에 있을까. 참으로 높고 높고 깊고 깊고 넓은 원대한 욕심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욕심의 한도는 어떠할까. 남에게 주는 이상의 것을 취하려는 욕심은 삼가야 할 것이다. 그 이상을 취하면 저승의 열가노자 앞에 가서 심판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사람은 욕심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게 되니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유의 의사에 맡길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제까지 따뜻하다가 새해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추위가 찾아와 영하 10도 이하로 곤두박질치고 있으니 하늘이 망령을 한 것 같다. 하늘도 이 같이 요즘 사람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망령 들린 지들도 많다고 있다. 너무도 무모하고 무리하고 불인 불의 불법(不仁, 不義, 不法)한 행동을 식은 죽 먹듯 하고 있으니 성현 가신 때가 멀기는 멀었나 보다.

〈백양사 주지〉

신년 유감

이다. 이 같은 문제의 해답은 이제까지 살아온 옛사람들의 경험과 깨달음에서 찾지 않을 수 없다.

부처님 제세시의 제바달다와 공자시대에 함께 살았던 도척 같은 사람은 회대의 살인성(殺人性) 욕심을 품었던 인류사적 패악무도한 사람이다. 진시황이나 히틀러 같은 욕심도 남들은 죽어도 자기만 영화를 누리면 그만이라는 욕심쟁이다. 그와 같은 욕심을 부리다가 며칠이 못가 말할 것이 뻔한 일인데 불나비가 등잔불에 덩벼들 듯 뛰어놓고 허둥대는 저 같은 사람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중고칼럼

이영현



경인년(庚寅年) ‘호랑이의 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주나 지났다. 호랑이는 천성적으로 의리와 정의를 중시하여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결단력 있고 정열적이며 덕을 쌓는 동물의 왕으로 알려져 있다.

호랑이는 이처럼 다른 동물들에 비해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 멋진 동물이다. 우리 민족에게는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 동물이기도 하다. 호랑이가 건국 신화에도 등장하고, 민간신념에도 산신령이나 산간자(山君子)로 통하며, 우리 민족의 혼도 상징한다. 그런데 올해에 맞이한 ‘호랑이의 해’

충청권, 강원권, 영남권, 호남권 등)의 차별과 분열 조짐도 노골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며 특히 수도권과 지방권의 현저한 차등을 극복하려고 수년 동안 전문가들의 연구와 수백 차례의 토론회를 걸쳐 여야의 합의로 이루어져 막 시행되어 순조롭게 진행되어온 ‘지역균형발전계획’이라는 국책사업마저도 현 정부의 졸속 정책 받는 동물이기도 하다. 호랑이가 건국 신화에도 등장하고, 민간신념에도 산신령이나 산간자(山君子)로 통하며, 우리 민족의 혼도 상징한다. 그런데 올해에 맞이한 ‘호랑이의 해’

백호의 기백·기상이 더욱 절실한 요즘

는 여느 해와는 달리 60년 만에 돌아온 ‘백호의 해’라고 한다. 그래서 올해는 왠지 우리 민족에게 특별히 많은 행운이 주어질 무스 일인듯 하는 일마다 잘 될 것 같다는 예감도 들고, 특히 백호가 보여주는 씩씩하고 굳센 기백과 늠름하고 활달한 기상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리라는 바람도 갖게 된다.

돌이켜보건대, 60년 전 ‘백호의 해’는 불행하게도 우리 민족에게 있을 수 없는 동족상잔이란 천천백력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살벌한 해였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의식 있는 선각자들과 애민족자들이 그동안 사방팔방으로 끊임없이 펼쳐온 헌신적인 민간의 노력으로, 그리고 지난 정부가 일구어온 ‘햇볕정책’으로 인해 그 냉혹한 긴장과 갈등은 살얼음 녹듯이 풀리는 듯했으나, 요즘엔 그것마저도 옛 얘기가 되어버리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한 맺힌 응어리로 부족함이 동서(東西) 갈등으로 인한 냉소와 반목은 더욱 심화되어가고, 권역별(수도권,

호랑이가 우리 민족사에 다양하게 등장한 것은 우리 선조들의 삶이 호랑이와 공존 상생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때는 평화스러웠음을 반증해주는 듯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에 기다리며 갈망한 ‘메시아’가 펼칠 ‘평화의 왕국’을 사나운 야생동물과 온순한 짐승이 함께 어울리는 삶으로 은유하여 표현한 성경말씀(이사 11, 6-8 : 65, 25 참조)도 연상케 해준다.

이런 삶이 막연한 이상(理想)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호랑이에게 물러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을 아이러니하게도 씩씩한 마음으로 되새겨본다.

우리 민족(民衆)들만이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백호의 비상처럼 2010년을 더욱 힘차게 함께 계속 뛰자고 마냥 외치고만 있다. 바로로 사도가 말했듯이,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는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만들며 평화를 누리도록 해준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로마 5, 1-5 참조).

〈저평동성당 주임신부〉

기고

고광만



지난해 4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발표에 의하면 광주가 지난 5년간 꾸준히 수능 성적 상위 1등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외고도, 자사고도 없고, 서울 같은 대형 학원도 없는 평준화 지역 광주가 학력평가경쟁에서도 1등을 하는 것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영진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을)은 지난 국정감사 때 교육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교육건강성 지표”(그 지역의 교육이 얼마나 건강한가에 대한 6가지 지표)를 만들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평가했다. 이걸 점수화해서 평가해보니, 강

업성취가 결정되고, 학비부담 능력이 있는 집단의 자녀만 좋은 학교에 진학시킬 수 있는 고조로 바뀌었다. 신자유주의 교육을 통해 시장논리와 자본의 논리가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제 이러한 시장주의 교육개혁을 냉철히 비판하고 새로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우리는 최소한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교육기회의 평등, 인간주의 교육의 실현을 지향하고 공교육의 위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해야한다. 일사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실용적

우리 교육의 미래와 현주소

원도가 1등이고, 광주시가 2등이었다.

교육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었다.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었던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열’이 있었기에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 성장의 동력이 되어야 할 교육이 오히려 사회발전을 저해할 정도로 심각한 성장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MB정부 출범 이후 지나치게 격화된 학력경쟁으로 인해 학생들은 과도한 학습에 지쳐가고 있고 높은 사교육비로 가정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공교육은 사교육에 밀려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고,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학교교육이 교육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교육의 미래,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학교교육이 제자리를 찾아야한다. 우리의 교육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삶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이제 가진 자들, 상위계층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 자본에 의해서 학

인 지식과 기술을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의 조건을 확보해야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재정 지출 요인을 줄여 교육비를 GDP대비 7% 이상으로 확보하여 학교시설 현대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원의 재교육 및 연수 강화를 통해 질적 수준을 유지해야한다. 객관적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통해 교육에 대한 다양한 노력과 헌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이 시대의 중요한 교육 가치는 교육격차 심화 현상을 줄여나가 누구에게나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복지사회 구현이다. 교육에서만큼은 경쟁과 효율성의 이름에서 탈피하여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기회 확대와 평등화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삶의 기회가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나가야한다. 〈광주시서구 송학초 총동문회 사무부총장〉

시설

공명정대한 농협조합장 선거 기대한다

광주·전남지역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사정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6·2 지방선거에까지 불법·타락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농협조합장 선거는 오는 3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전남의 경우 전체 156개 조합 가운데 3분의 1인 56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뽑게 된다. 광주·전남도 선관위는 물론 검찰과 경찰이 부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고 농협도 자체적인 선거부정 감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협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탈·불법 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선거과정에서 선관위에 고발된 부정 선거 사례가 8건에 달하는 데다 최근 조합장 2명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받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금품살포에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이 끊이지 않는 등 공명정대한

선거풍토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등 농협은 지금 개혁의 산통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 조합장 선거가 각종 비리로 얼룩진다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농협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행 선거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 선거운동 기간이 10월에 불과해 공직선거법보다 짧은데다 호별방문이나 공계장소에서 명함을 돌리는 행위 등도 금지돼 있다. 후보자 간 경쟁경쟁은 물론 정책을 알리고 비교할 수 있는 마땅한 기회가 없어 불법 선거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조합장 선거는 이제 지역의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의 주인인 농민들 스스로 깨끗한 한표를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합원 상호간 불신만 커진다면 위기에 처해있는 농업의 미래는 더욱 어두울 수밖에 없다.

금호타이어 ‘가동 중단’ 최악의 사태 없어야

워킹아웃 실사를 받고 있는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이 원료가 없어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고 한다.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은 지난 19일부터 3교대로 이뤄지던 생산라인 중 야간 공정을 줄이는 등 24시간 가동체제를 16시간으로 줄였다. 이는 타이어 제작을 위한 원재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자칫 공장 가동이 멈출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재 비축돼 있는 원재료가 다음달 중순에 바닥날 때문이다. 따라서 원재료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가동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곡성공장의 위기는 채권단이 자금집행을 미루고 있는데서 비롯됐다. 채권단은 금호그룹 경영주의 사제 출연과 노조의 워킹아웃 협조등서(구조조정 등 백지위임) 없이는 자금집행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채권단의 이 같은 입장은 원활한 워

킹아웃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다. 하지만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장가동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공장이 멈춰 선다면 이후 유동은 채권단도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해외주머니가 밀려 3개월째 풀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동이 중단되면 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돼 수출선이 끊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업원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 지역경제에도 엄청난 파장이 일 수밖에 없다.

채권단은 무조건 공장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자금집행을 당장 허락해야 한다는 얘기가. 채권단 스스로 금호타이어는 청산보다 존속가치가 더 높다고 했지 않은가. 워킹아웃 조건의 공장을 가동하면서 협상해도 충분하다. 기업을 살리기 위한 워킹아웃이 기업 회생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無等鼓

세종시 문제는 한국의 ‘권력 지형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내세운 ‘국토균형발전’이 이명박 정권의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가치와 충돌하고, 이는 다시 ‘신뢰의 정치’라는 박근혜의 조건을 확보해야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재정 지출 요인을 줄여 교육비를 GDP대비 7% 이상으로 확보하여 학교시설 현대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원의 재교육 및 연수 강화를 통해 질적 수준을 유지해야한다. 객관적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통해 교육에 대한 다양한 노력과 헌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이 시대의 중요한 교육 가치는 교육격차 심화 현상을 줄여나가 누구에게나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복지사회 구현이다. 교육에서만큼은 경쟁과 효율성의 이름에서 탈피하여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기회 확대와 평등화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삶의 기회가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나가야한다. 〈광주시서구 송학초 총동문회 사무부총장〉

뒷면은 물론 좌우 구별도 힘들다. 1858년 독일의 수학자 괴팅겐이 처음으로 제시했기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괴팅겐은 여러 분야에서 응용된다. 정미소의 원동기와 회전체를 연결하는 컨베이어 벨트, 놀이공원의 회전열차, 한번 비틀어 마주 붙이는 형식으로 만든 자루 등이다. 면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동력을

상생의 뒤틀리우스



전달할 수 있고,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용량도 배가된다고 한다.

세종시에서처럼 대결과 반복보다는 상생과 소통의 상징으로 여겨질 때가 더 많다

는 얘기가. 뒤틀리우스의 띠를 활용해 만든 재활용 로고나, 한 통신회사의 띠로 바뀌는 것처럼 인생사가 뒤틀리우스의 띠인지도 모른다. 빛과 어둠, 선과 악, 미녀와 야수, 가해자와 피해자가 순식간에 교차하지 않는가.

뒤틀리우스의 띠는 직사각형의 띠 모양의 종이를 한번 꼬아서 끝과 끝을 연결했을 때 생기는 곡면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띠는 면이 한 개밖에 없다. 앞면과

/김주정 정치부장 jnews@kwangju.co.kr

영세상인 속이는 유사금융업체 주의

인터넷 광고나 혹은 아파트 현관문에 ‘급자금을 필요로 하십니까, 저희가 보증을 서드립니다!’ 이런 내용의 홍보 문구를 쓰인 선전지가 자주 날라온다.

이런 업체는 주로 보증 혹은 캐피탈 같은 상호를 쓰다 보니 중소기업자들이 그걸 덜컥 믿게 된다. 이렇게 실체가 불분명한 유령회사들은 제품 구매, 기타 채무 등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도 챙기는 것이다. 결국, 이곳에서 발급한 지급보증서를

민고 물건을 팔았던 판매업체가 그 물건을 사간 쪽으로부터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가 이 밖에 보증회사는 지급보증 해준 만큼의 변제를 못 해주는 것이다.

금융기관으로 인허가를 받은 은행이나 보증보험회사, 법률로 허용된 보증금인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유사금융행위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하셔야겠다. ▲이기현·광주시 북구 용봉동

제설함 모래, 굳어지지 않게 관리했으면

눈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의 산기슭 도로에는 제설함을 설치해 모래를 담아 놓는다. 그런데 제설함에 있는 모래가 거의 대부분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제설함 뚜껑이 열려져 있는 눈이나 비를 맞아 축축해져 있는 상태에서 강추위가 몰아치면 얼어버리기 때문이다.

일단 그렇게 얼어서 굳어버리면 봄날이 올 때까지 다시 풀리기가 잘 어렵다. 그런 제설함 대부분이 응달진 산기슭에 있기 때

문에 쉽사리 햇빛이 들지 않아 녹기 힘들기 때문이다.

폭설이 내리거나 비 또는 눈이 온 뒤 녹아서 빙판이 됐을 때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모래 함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면 말장 헛일 아닌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기왕지사 설치한 안전운전용 시설이니 각 시군 지자체에서 이걸 온전히 관리하고, 그제 쉽게 굳지 않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이학섭·광주시 광산구 양산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2010년 1월 22일 발행·편집: 인세인 柳濟誌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본사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曹慶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222-4918 편집부 2200-672 정취부 2200-634 사회1부 2200-612	사회2부 2200-692 <F A X 227-0118> 문화체육부 2200-661 여론제작부 2200-679 체육팀 2200-663 사인부 2200-691 조서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7-9600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